

“‘스무살’ 담양대나무축제 보고 먹고 즐기러 오세요”

오는 7일까지 죽녹원·관방제림 일원서 펼쳐져



천년의 도시 담양에서 '대숲 향기, 천년을 품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제20회 담양 대나무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고 담양군이 3일 밝혔다. 개막식 장면.

‘천년의 도시’ 담양에서 ‘대숲 향기, 천년을 품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2년 연속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빛나는 담양 대나무축제는 올해로 성년을 맞았다. 특히 담양이라는 지명이 생긴 지 천년이 되는 해에 치러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날 개막

식 식전행사에서 담양대나무축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영상과 장엄하고 환상적인 티아터퍼포먼스를 선보인 ‘미디어 대북 공연’으로 담양천년의 문을 두드리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담양군 12개 읍·면을 상징하는 12명의 무용단이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무용과 함께 대나무축선 퍼포먼스로 화려한 문을 열었다. 개회식에서는 박중년 (세담양매나

무축제위원회 위원장, 조용익 군수 권한대행, 이규현 군의회 부의장, 니콜라 스미스 미국 린우드시장 등 4명이 무대 위에 올라 영산강 시원 지 생명수를 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식후 행사로 열린 KBC축하공연에서는 가수 홍진영, 조항조 서지호 등이 출연해 대나무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축하하며 축제의 흥을 돋웠다.

이번 축제는 천년의 역사와 함께 이어온 대나무의 문화적, 환경적, 자산적 가치와 인문정신을 담아 과거 천년과 미래 천년을 잇고 대나무의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축제 기간 중에는 대나무의 다양한 활용성과 군민의 삶이 깃든 생활사를 재현한 ‘역사문화 퍼레이드’와 대나무 공예명인 작품과 제작 시연, 대나무를 소재로 즐기는 다양한 체험 놀이, 담양 별빛여행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년 연속 국내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한 대나무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다”며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축제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내 VR체험존 개관

게임·체험적 요소가미한 지역특화 콘텐츠 자체 개발



곡성군은 게임·체험적 요소를 가미한 지역특화 콘텐츠를 관련 업체와 공동 개발한 ‘섬진강기차마을 VR체험존’을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임시 개관한다고 밝혔다. 본 개발은 2017년부터 기획·추진하여 올해 1월에 개발을 완료했

다. 해당 콘텐츠는 섬진강기차마을과 도깨비마을 등 실제 곡성의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제작되었고, 이 같은 스토리텔링적 요소에 2명의 VR시뮬레이터가 레이미이크 페달을 굴리며 가상현실에서 경주하도록 구성되어 게임·체험적 요소가 가미된 지역특화 콘텐츠이다.

2018년 4월 중 VR체험존의 인테리어를 마무리하여 이번 제96회 어린이날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운영할 계획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추후 3~5대의 VR체험기기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우리군이 차세대 유망산업인 VR콘텐츠 경쟁력을 선점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결합하여 섬진강기차마을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강진군, 벼농사 짓기 더 편해진다

못자리 1회 약제 살포 시범사업 243ha 추진



강진군이 지난 2일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농업인 일손절감과 농사비용 절감을 위한 벼농사 일손 절감 기술 현장 연수회를 도암 옥전마을에서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강진군이 지난 2일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농업인 일손절감과 농사비용 절감을 위한 벼농사 일손 절감 기술 현장 연수회를 도암 옥전마을에서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에서 한국연구재단 임원하박사가 최신 벼농사 일손 절감 기술인 못자리 1회 약제 처리 기술 교육과 벼 소독제 기술, 병해충 저감 기술을 교육하고 현장 시연회를 추진했다. 못자리 1회 약제 처리 기술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3년여에 걸친 실증 시험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는 243ha에 시범사업으로 보급한다. 못자리 1회 약제 처리 기술은 조생종 조기재배(표준 개화기보다 일찍 꽃이 피고 성숙하는 품종을 보통 재배시기보다 앞당겨 재배하는 방법)단지에 최적화된 약제 처리 방법이다. 모내기 2~3일 전 종합살충제, 작물활성제, 살균제 비율에 맞춰 모판 수량에 따라 물과 혼합하여 불뿌리개를 이용하여 모판상자 1개당 250~300ml 정도 뿌리는 약제 처리 한다. 기존 모판에 뿌리는 상지처리 약제와 달리 비에 빠르고 균일하게 흡수되며, 병해충의 발생 밀도가 높아지기 전에 사

전에 예방할 수 있어, 추후 불발 해충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 사용하는 방편에 비해 약제 살포시간을 80%정도 절감할 수 있고 별도 살포 장비가 필요없으며, 약제를 포함한 살포 비용도 13%정도 절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농약 살포를 2회 이상(상지처리약제, 벼 생육중 농약살포)작업했으나 못자리 1회 약제 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이양전 모판에 1회 불뿌리개를 이용하여 약제를 1회만 뿌려주면 되니, 노령·여성농업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피아발에 눈에 들어가 농약을 살포하는 중노동을 안해도 되므로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게 대환영을 받는 농가 일손 절감에 적합한 최신 벼농사 기술이다. 다만 조기재배 조생종단지는 분단 생육기간이 120일 이내이므로 이 농법 적용이 가능하나 중만생종, 이모작인 경우 출수기에 추가 약제 살포를 하면 안전한 병충해 방제가 가능하다.

같은날 병시 종자소독요령에 대한 교육과 연수회를 추진했다. 온탕 소독기를 이용한 친환경 병시 종자소독요령과 소독약제를 이용한 일반소독요령을 알려 건전한 육묘관리를 통한 고품질 강진쌀 생산에 중점을 두었다.

이동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년도부터 도입한 편한 벼농사 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농업인 일손절감과 농업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현장 기술 지원과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못자리 1회 약제 처리 농법은 농가들의 호응도에 따라 점차 지일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공공일자리 정규직으로 95명 전환

전환 심의위서 확정... “좋은 일자리 창출 앞장”

영암군에서는 일자리 정부 출범 이후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 95명을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일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후속 조치이다.

이와 함께 영암군은 정부의 공

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마련된 전환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서별로 실무심사를 거친 후 2차례의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군은 비정규직의 규모, 직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관계 전문가, 변호사, 군의원, 노동계 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고 실무부서의 사업별 업무에 대해 전환범위, 임금체계 등을 심도 있는 논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였다.

또한, 군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심

사제를 도입, 관리규정을 6월 중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집중기로 했다.

이윤리, 향후 전환대상자의 부서별 개인평가와 경력사유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적격자를 선정, 7월 중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영암군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라남도 최초로 ‘일자리 질을 높여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군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군민들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 광주 지역 안내 | |
|------------------|------------------|
| 계림 010-3635-7195 | 백운 010-2943-8374 |
| 중앙 010-3365-6200 | 광산 010-5604-6533 |
| 학운 010-4166-1810 | 송하 010-8620-1925 |
| 광천 010-6612-8599 | 임동 010-2656-4543 |
| 금호 010-6636-2775 | 양산 010-2646-3205 |
| 상무 010-5359-7406 | 오치 010-7532-3313 |
| 풍암 010-6634-5084 | 북구 010-4601-2080 |
| 화정 010-8438-3819 | 동운 018-611-7751 |
| 봉선 010-9474-0212 | 용봉 010-4601-2080 |
| 진월 010-2615-8374 | 두암 010-2684-6091 |

| ◆ 시 외 안내 | |
|------------------|------------------|
| 강진 010-4606-0660 | 영암 010-5655-2415 |
| 담양 010-3629-9016 | 완도 010-9578-5900 |
| 무안 010-5234-2313 | 장성 010-5287-7711 |
| 보성 061-853-9125 | 장흥 010-6234-6226 |
| 순천 010-2300-9083 | 진도 010-3081-5203 |
| 광양 010-5604-6981 | 함평 010-3625-3160 |
| 여수 010-6655-8503 | 화순 010-2077-6464 |
| 영광 010-3611-3081 | 곡성 010-3615-1088 |

혁신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마름길을 열어줍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